

## “이곳이 선거운동 명당”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라.’

6·2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재래시장·등산로·대형 할인점·성당·교회·사찰 등을 가리지 않고 누비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비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있다.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시간대 별로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른바 ‘선거운동 명당(明堂)’이다.

그렇다면, 예비후보들이 선호하는 각 자치구별 선거운동 명당은 어디일까?

### 광주 선거운동 명당



### 출근시간 산수오거리

◇동구=산수 오거리가 대표적인 선거운동 명당자리로 꼽힌다. 오전 8시~9시 사이 출근길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시간여 정도면 시민 500여 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오후에는 ‘남광주 시장’이 최적지다. 매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장을 보러 나오는 시민들과 상인 등으로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무등산 중심사 입구가 대표적 장소로 이미 알려져 있다.

### 오후엔 양동시장

◇서구=양동시장이 최고의 명당이다. 7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데다 서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대는 풍암지구와 상무지구 주민들의 아침 운동 장소인 풍암 저수지와 5·18 공원 등이 주요 공략지역이며, 출근 시간대는 광천동 기아자동차 남문과 북문이 명당으로 꼽힌다. 오전 7시30분께 2교대 근무

조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각이어서 교대하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상무역도 출·퇴근시간 공략장소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 공략의 경우 광천터널 유스퀘어가 최적지고, 주부 및 가족단위 공략지역으로는 롯데마트 월드컵 점이 선호되고 있다.

### 푸른길공원도 선호

◇남구=진월동 푸른길 공원은 남구청장 예비후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오후 1시 이후 산책 나온 노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다. 휴일엔 봉선동 거제교회 등 대형교회와 성당이 최고의 명당자리로 손꼽힌다. 구청장 예비후보들이 일요일 하루 찾아다니는 교회와 성당만 20여 곳이 넘는 정도다. 남구 노인건강타운은 60대 이상 노령층 공략장소로는 최적지며, 봉선동 문화예술회관과 이마트 인근 식당가는 직장인·주부 등 20~50대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어 최근 최적의 명당으로 떠오르고 있다.

### 틈나면 말바우시장에

◇북구=말바우시장은 모든 예비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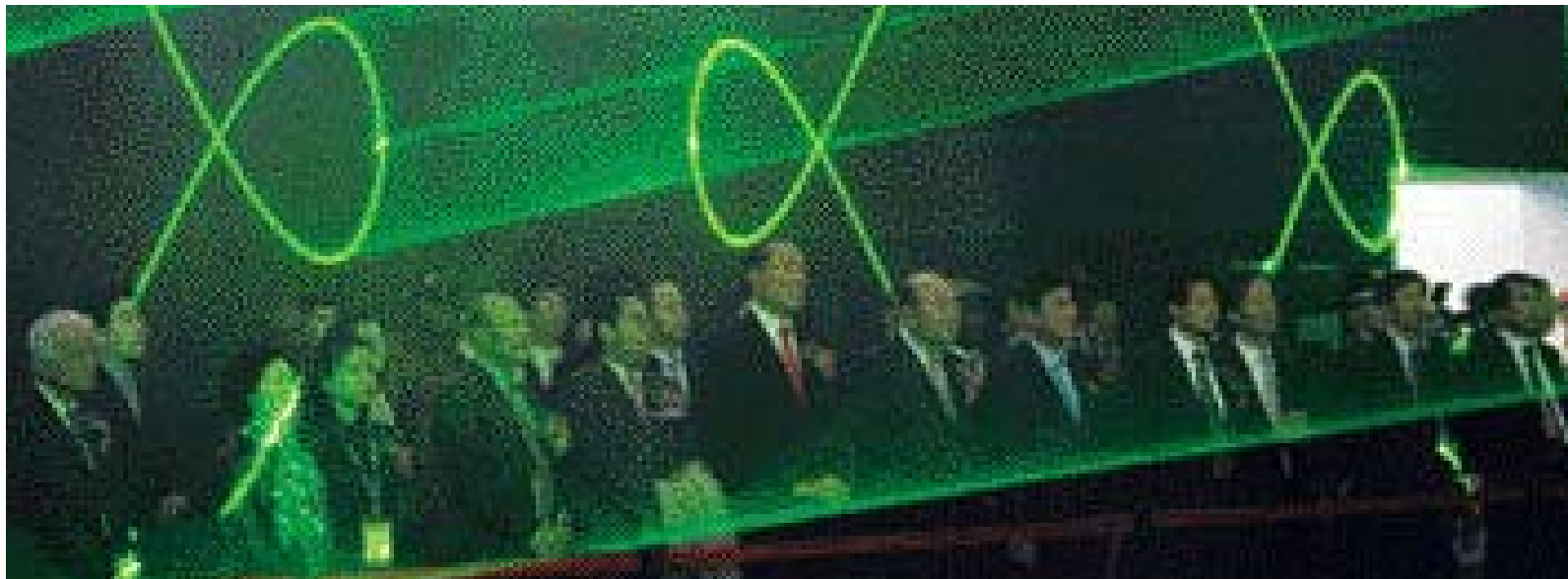
동 장소다. 점포와 노점이 1천500곳 가량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서다. 대형 마트 중에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후보들이 자주 찾는 명당이다. 예비후보들이 주 3회 이상은 이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저녁 7~9시 사이에 장을 보러오는 맞벌이 부부들이 주요 타깃이다.

북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삼각산 등산로 입구와 일곡동 새암봉 등산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 퇴근시간 식당가로

◇광산구=송정 5일장이 최고의 선거운동 장소다. 바깥 출입이 잦지 않은 전업 주부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날 수 있다. 또한,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집중된 수완지구와 흑석동의 경우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이 명당으로 꼽히고 있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앞에서 2시간 여 정도만 있으면 최소 1천여 명의 명함을 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침시간에는 어등산 등산로 입구와 첨단 쌍암공원도 빼놓을 수 없으며, 저녁 9시 이후에는 첨단병원 부근과 하남 흑석사거리 식당가를 자주 찾는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光엑스포 개막

2일 개막한 세계 최초의 빛 엑스포인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엑스포 대회장인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빛 산업기술관에서 시연된 ‘지구 탄생 레이저쇼’를 감상하고 있다. 광주세계광엑스포는 오는 5월9일까지 계속된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 수중수색 재개... 격실 진입 시도

### 故 한주호 준위 무공훈장 수여

### 천안함 실종자 탐색 쌍끌이 어선 10척 동참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작업이 기상악화로 중단된 지 3일 만에 재개됐다.

군은 2일 천안함 탐색과 실종자 구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상륙함인 ‘하퍼스페리’가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해군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상륙함인 ‘하퍼스페리’가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함미 부분에 가용 잠수사 27개 조 54명을 교대 투입해 인도줄이 연결된 함미 좌현 출입구를 통해 승조원 식탁 내부에 진입해 실종자 탐색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함수에서는 24개 조 48명의 잠수 요원들이 출입구인 함

리호도 도착해 감압 챔버와 헬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기상악화로 수중 탐색작업을 전혀 하지 못한 군은 이날은 기상이 다소 나아져 탐색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함미 부분에 가용 잠수사 27개 조 54명을 교대 투입해 인도줄이 연결된 함미 좌현 출입구를 통해 승조원 식탁 내부에 진입해 실종자 탐색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함수에서는 24개 조 48명의 잠수 요원들이 출입구인 함

장실에서 전담실까지 안내줄을 연결해 실종자를 탐색하고 있다.

이 준장은 “오늘부터 쌍끌이 어선 10척이 사고해역 외곽구역에서 흑시 있을지 모를 부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작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이후 지금까지 구명의 보관상자와 균용이불 등 31종 103점의 부유물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편 등 각종 부유물을 모아 조사할 것”이라며 “금속파편에 대한 세부조사는 외국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 능력이 있으면 하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 준위가 실종된 부하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만큼 무공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국훈장 추서와 별도로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인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지만 한 준위가 군 생활을 한지 올해 35년째여서 2년 뒤 전역하면 광복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훈장 추서를 놓고 부조절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광복장은 33년 이상 군생활을 한 위관급 이하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주는 훈장이다.  
/연합뉴스

### 민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첫 경선

## 동구청장 후보 오늘 결정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3일 최종 결정된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갖는 기초단체장 경선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구문화센터에서 동구청장 경

선 후보로 확정된 유태명·조영복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갖는다.

이날 경선은 두 명의 후보자가 정견 발표를 한 뒤 800여 명의 동구지역 민주당원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는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에 마

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 뒤 개표결과와 함께 사전에 이뤄진 국민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예초 이날 경선은 광주시 선관위에 위탁해 치를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선거인단을 2배가량 늘리면서 철회했다. 선거인명부가 2~3일 전 선관위에 통보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선거인단이 늘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움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타·세기보청기

4월 5일 (토) 10:00~12:00  
1388-8489-888-322-9108  
062-605-1114